

# 무안국제공항서 중국 항저우 간다...9월부터 정기노선 취항

### 김영록 지사, 전남 관광 소개·정기 취항 협약...정기노선 6개로 증가 여행기업 에이앤드티, 글로벌 남도한바퀴 연계 관광상품 발표 관심

무안국제공항의 정기노선이 6개 노선으로 늘어났다. 제주, 중국 연길·장가계, 몽골 울란바토르 등에 이어 중국 항저우까지 무안에서 정기적으로 떠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9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알리는 전남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터 무안-항저우 정기노선을 취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9일 중국 항저우 나라다 그랜드 호텔에서 현지 여행·항공업계 관계자와 언론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전남도 관광설명회에 참석했다.

관광설명회에는 전남관광 중국 저장성 문화방송여

유정장과 노타에어서비스, 퐁에어 등 항저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 골지의 여행·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향후 중국과 전남 간 관광교류 활성화에 기대감을 더했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홍보에 이어 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저우전성 노타에어서비스 대표와 함께 '무안-항저우 정기편 취항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중순부터 무안-항저우 정기노선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선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베트남, 대만, 몽골 등 다양한 국가의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전남 인바운드 여행 1위 기업인 에이앤드티에서 전

남 전용 3박4일, 호남권 4박5일 여행상품 및 글로벌 남도한바퀴 연계 상품을 홍보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전남도관광플랫폼(JN TOUR) 어플을 활용한 자유여행 소개도 겸해 패키지관광뿐만 아니라 개별관광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항저우 정기노선 취항으로 26년간 자매도시로서 깊은 인연을 이어온 전남도와 저장성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항공편을 통해 많은 분이 전남을 방문해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가장 한국스러운 전남의 맛과 멋을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무안국제공항의 정기노선은 진에어·제주항공의 제주-무안, 제주항공 무안-장가계·무안-연길, 진에어항공 무안-울란바토르, 사천공항 무안-장가계 등이 운항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현지 시간) 저장성 항저우 나라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남관광설명회에 참석해 현지 여행·항공업계 관계자, 언론인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G-페스타 광주' 을 가을 물들인다

### 이벤트 통합브랜드...시·자치구·ACC 등 10개 기관 협약

광주시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지역 문화기관이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동구·서구·광산구 등 자치구,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관광공사, 광주문화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과 'G-페스타 광주'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G-페스타 광주'는 광주에서 매년 9-10월 열리는 예술·맛 축제와 행사, 마이스(MICE)를 한데 아우르는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따 말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하는 유망 산업을 아우르는 말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G-페스타 광주'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통합브랜드 및 홍보마케팅 지원, 행사 간 연계콘텐츠 개발, 관광상품운영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관광객이 광주만의 매력을 충분히 만끽하고 돌아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개최 시간과 장소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마케팅'에도 집

중하기로 했다.

올해 'G-페스타 광주'는 '예술 콘셉트의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와 '맛 콘셉트의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로 나눠 열린다.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광주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 에이스페어(광주관광공사)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프린지페스티벌(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화페스티벌(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선대학교 총장배 e스포츠대회(조선대학교)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광주 동구) 등 12개 행사가 열린다.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광주식품대전(광주관광공사) ▲광주김치축제(광주시) ▲광주 송정남도맛 페스티벌(광주 광산구) ▲광주서창역 새축제(광주 서구) 등 6개 행사가 펼쳐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G-페스타 광주'라는 하나의 '연결 지음'으로 축제와 축제를 연결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마련했다"며 "'G-페스타 광주'를 통해 우리 광주의 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남구 '화방(房)산' → '화방(芳)산' 변경

### 효천지하차도 등 10곳 지명 고시...인공지명·일본식표기 정비

일본식 표기 의심 지명인 광주 남구 '화방(房)산'이 '화방(芳)산'으로 바뀐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인공지명 9건 명칭 제정안과 자연지명 1건의 명칭 변경안이 결정·고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여한 신규 고시명은 남구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인 '효천지하차도'와 '효천2육교'를 비롯한 '지석제공원', '달뿔땀방아마을어린이공원', '개동공원', '맹간제공원', '대지공원' 등 공원이다. 또 광산구 '첨단지하차도'와 '단전어린이공원'이 포함됐다.

특히 일본식 표기 의심 자연지명인 '화방(房)산'은 '화방(芳)산'으로 변경 고시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일본식 표기 의심지명 정비 추진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일제강점기 때 화방(房)산으로 표기된 지명을 강점기 이전 당초에 사용하던 화방

(芳)산으로 정비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새로 결정된 지명은 국가 지명위원회에 보고한 뒤 고시되면 각종 지도에 반영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송희중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광주시역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담은 지명을 지명위원회에서 제정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권리에 대한 편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새로 바뀐 전남 출산지원 꼭 챙기세요"

### '한눈에 보는 출산지원' 개정판 발행...보건소 등에 배부

전남에서 출산을 준비중인 여성들을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이 망라된 책자가 발간됐다.

전남도는 결혼·임신·출산을 준비중인 여성들이 정책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한눈에 보는 출산지원' 책자 개정판을 발행했다.

휴대하기 간편한 소형 핸드북 형태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군·읍·면·동, 보건소 및 사회단체연합회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했고 전남도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책에 담긴 주요 신규 지원 사업으로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사업',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등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들을 위해 난 소기능검사, 초음파 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 13만 원·남 5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 임신 전 장애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여성 중 난소기능 검사 수치가 1.5 이하인 30~40세인 경우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자 냉동 시술비의 50%(최대 200만 원·1회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 및 거주지 등 지원 기준 완화와 사업 규모 등이 달라진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출산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11개 시·군에서만 진행됐지만 올해는 영암군에서도 시행된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애초 이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성,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부전 공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대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